궁을 찾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단아하고 차분한 건축미, 조용한 산책로에서 느껴지는 정갈한 분위기가 있다. 이곳의 모든 사물이 오랜 이야기를 품고 있기에, 돌덩이, 나무 한 그루, 흙 한 줌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번 겨울, 부모님과 함께 창경궁을 찾는 것은 어떨까? 고즈넉한 궁을 걷는 즐거움과 함께 예쁜 꽃과 푸른 잎사귀가 가득한 대온실도 따뜻하게 우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글·사진 김효정

겨울에 느끼는 봄의 기운
창경궁 대온실

GREENHOUSE OF CHANGGYEONGGUNG

겨울에도 따뜻한, 창경궁 대온실의 시간

어릴 땐 부모님이 내 손을 잡고 오가던 곳이었고, 초등학교 소풍 때, 여름방학 숙제를 하기 위해 찾았던 창경궁. 그 시절과는 이제 느낌이 사뭇 다르다. 궁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시와는 분리된 것 같은 기분이다. 조용하고 고즈넉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이제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닮아간다.

창경궁에는 색다른 일제의 잔여물이 남아 있다. 바로 대온실이다. 대온실은 창경궁 입구인 홍화문으로 입장해 오른쪽으로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다. 조선의 궁 안에 조금은 이질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대온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제국주의 문화 침탈의 비극과 근대 건축의 선진성이라는 두 가지 면모를 가지고 있다. 1907년 고종의 강제 양위 사건 뒤에 일제는 순종 황제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창경궁을 대대적으로 훼손하기 시작했다. 1909년 11월 1일,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의 개원식이 성대하게 열렸고, 1911년 창덕궁과 함께 조선의 동궐(東闕)이었던 창경궁은 창경원으로 격하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창경궁에 식물원이 건립되면서 가장 먼저 대온실이 들어섰다. 일본인 원예학자 후쿠바 하야토의 설계로 지어진 대온실은 일본의 신주쿠 온실을 모델로 삼았다. 온실 내부는 긴 직사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로 34m x 세로 16m의 크기로, 남측과 양측에 출입구를 배치했다. 최고 높이 10.5m의 1층으로 이뤄진 서양식 온실로, 철골과 유리, 목재가 혼용이 된 형태의 온실이다. 후쿠바 하야토의 계획에는 대온실 이외에도 배양실이 그려져 있었고, 실제 창경궁에는 부속 온실 2개가 더 있었지만, 지금은 대온실만 남겨진 상태다. 대온실 외부는 화강석 기단에 모스크형의 나무 창살을 둘러 장식성을 강조했다.

철골과 유리가 만든 초록의 공간

온실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겨울에도 싱그러운 식물을 만날 수 있다. 호랑가시나무, 독도왕해국, 흰줄무늬 달개비, 월계수, 팔손이, 산다화, 동백나무, 돈나무 등 총 110여 종 160본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야생화, 자생식물 등을 만날 수 있다. 중앙 통로에는 키가 큰 식물들을 심었고, 양쪽으로 관람객이 쉬어 갈 수 있는 벤치를 두었다. 겨울철에 쉽게 볼 수 없는 초록 잎이 무성하고 붉은 꽃이 만발한 공간이라 둘러보지만 말고, 잠시 쉬어 가는 것도 추천한다. 따뜻한 공간에서 도란도란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 이 시간이 보물처럼 느껴질 테니 말이다.

바닥은 본래 벽돌 마감이었는데, 1980년대 시멘트 미장을 거쳐 지금은 타일로 마감이 되었다. 온실의 관리를 위해 각종 기계와 창호 개폐 방식에서 당시 첨단 공법이 도입되었다. 지금까지 대온실은 설립 후 많은 변화를 거쳤고, 한국전쟁 때 큰 피해를 입었다. 1961년 보수공사를 하면서 창문 한 틀에 지붕 유리창을 5열씩 배열했던 것을 3열로 바꿨다. 유리창을 단단하게 지탱하기 위해 트러스와 주철 기둥, 목재 구조체의 결합에 다양한 기술이 더해졌다. 백색의 세장한 부재를 사용한 초기의 특징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천장을 바라보면 철재 트러스트로 받친 지붕이 인상적이고, 온실 채광을 위해 지붕 밑에 한층 높게 창을 냈다.

19세기 서양에서 건축의 새로운 구축을 가능하게 해준 주철과 유리로 지은 대온실은 내부에 열대 지역의 식물을 전시함으로써 전 세계로 뻗어 나간 유럽 제국의 확장을 과시하는 근대적 시설로 꼽힌다. 대온실은 서양에서 유입된 최초의 근대식 온실이라는 부분에서 2004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대온실을 상징으로 창경궁은 창경원인 채로 오랫동안 유원지로 방치되었다. 창경궁이 되기까지 폐쇄된 궁은 2년간의 복원 작업을 거쳤다. 동식물원은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전하면서 일제에 의해 건립된 시설들이 모두 철거되었고, 3년 만인 1986년에 창경궁은 일부 옛 모습을 찾게 되었다.

효(孝)의 마음을 다해 지은 궁궐

창경궁을 효의 궁궐이라고 한다. 이는 성종이 세 명의 대비(세조의 왕비 정희왕후, 덕종의 왕비 소혜왕후, 예종의 왕비 안순왕후)를 위해 옛 수강궁에 창건한 궁이기 때문이다. 홍화문을 들어서서 옥천교를 지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info.

창경궁 대온실

https://royal.khs.go.kr

관람시간

매일 : 09:00~20:45

휴관일

매주 월요일
12월~2월 18시부터 비개방
(단, 정기휴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개방하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정기휴일)

입장료

대인 1,000원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신분증 지참) 무료

관람 문의

02-762-9515

주소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

것이 명정전이다. 명정전은 현재 궁궐의 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로, 1985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왕의 즉위식이나 신하들의 하례, 시험 등 국가의 중요 행사를 치렀던 곳으로, '명정'은 '정사를 밝힌다'라는 의미가 있다. 1484년(성종 15)에 지어졌고,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16년(광해군 8)에 재건되었다. 명정전 앞마당에는 박석을 깔고 중앙에 삼도(三道)를 둬 궁궐의 격식을 갖췄다.

문정전과 숭문당을 지나면 함인정(涵仁亭)이 보이는데, '함인'은 '인에 흠뻑 젖다'라는 뜻으로 원래 인양전(仁陽殿)이 있었던 곳이다. 함인정 주변으로 푸른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 정자의 운치를 더한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33년(인조 11)에 정자 형태로 지었다. 이후 왕이 신하들과 만나고 경연을 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이밖에도 환경전, 경춘전, 성종 태실비 등 다양한 건물을 만나볼 수 있다. 아쉽게도 춘당지는 2026년 1월 12일까지 바닥 준설과 석축 보수 공사로 폐쇄되어 있으니, 공사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창경궁을 걷다 보면, 오랜 세월을 함께한 것 같은 연리목을 볼 수 있다. 수종이 다른 두 나무(회화나무와 느티나무)는 줄기와 가지가 서로 맞닿아서 하나의 나무가 된 것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나 연인끼리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한다. 부모님과 함께 걷는 길에 연리목을 만난다면, 손을 한 번 꼭 잡아 드려도 좋겠다. 효의 마음이 별 것이겠는가,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니 말이다.